



뉴스통신진흥회는 전사원 뜻 제대로 읽어야

진흥회와 이견 ... 진통겪어

진흥회 위원에 대한 불신아닌 투명한 시스템구축이 목적

사장추천위 구성방식을 놓고 사장선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유의주)와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진통을 겪고 있다.

비대위는 최근 진흥회 측에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사장선임을 위해 진흥회 위원이나 추천인사의 사장추천위 참여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전 사원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했다.

그러나 전 사원의 이런 결의에 대해 진흥회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사장추천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비대위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협상 자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비대위는 26일 노조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열어 진흥회의 주장대로라

면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뒤 처음 구성되는 이번 사장추천위가 자칫 과거 정실인사의 구습을 제도화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논의했다.

비대위원들은 외압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비대위의 사장추천위 구성안이 현재 재임중인 진흥회 위원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경영진이 교체되는 3년마다 반복될 사내 분열과 정치색에 물든 경영진 선임 시비를 잠재울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비대위와 진흥회의 사장추천위 구성안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양측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장추천위 위원의 구성문제로 비대위는 대의원 대회의 총의에 따라 정치적 입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진흥회 위원의 참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진흥회가 좌지우지하는 사장추천위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경영진이라면 추천과정에서의 불투명성뿐 아니라 연합뉴스의 경영과정에서도 독립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회는 연합뉴스의 형식상 대주주로서 경영진 선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장추천위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비대위는 진흥회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진흥회 추천 인사 1명을 사장추천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수정안까지 제시한 상황이다.

둘째 쟁점은 사장추천위가 추천하는

후보자의 수에 관한 것으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대위는 독립된 사장추천위에서 단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반면 진흥회는 3명 이상의 복수 추천을 고집하고 있다.

진흥회의 주장대로 진흥회 측이 상당수 참여한 사장추천위에서 복수추천을 한다면 결국 진흥회가 주도할 수 있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할 것은 자명하며 사원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는 유명무실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사장선임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진흥회와 협상을 벌여 전 사원의 뜻에 충분히 부합하는 사장추천위 구성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사장추천위 투쟁의지 점화

내달 3일 전사원 결의대회 ... 1인시위 돌입 · 집회 예정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장추천위 구성을 염원하는 사내 움직임이 가열되고 있다.

사장선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십야까지 노조 집행부 연석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사장추천위 구성을 위한 투쟁은 현 경영진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그 밀도와 강도가 높게 추진될 전망이다.

비대위는 28일 유의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뉴스통신진흥회 사무실 앞에서 공정한 사장추천위 구성을 요구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한 이번 1인 시위는 비대위 위원, 노조 집행부 뿐 아니라 연합뉴스 사원이 골고루 참여해 전사원의 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앞서 비대위는 27일 '공정한 사장추천위 쟁취를 위한 투쟁선언문'을 사내외에 공표했다.

비대위는 이 투쟁선언문에서 밀실·정실 인사 구조를 타파하려는 연합뉴스 사원의

열망을 외면하는 뉴스통신진흥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입장을 고수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내달 3일께 독립적 사장추천위 구성을 위한 전사원 결의대회를 여는것을 비롯, 5월 첫번째 주에 언론노조와 연계집회, 비대위 위원장의 미디어 간담회를 통한 사외 여론형성 작업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뉴스통신진흥회의 임시이사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여 전사원의 의지를 알릴 방침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연합뉴스 공채 기수를 중심으로 게시판을 통해 독립적 사장추천위 구성과 뉴스통신진흥회의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27일 공채사원 21기 전원의 명의로 뉴스통신진흥회의 사장추천위 불간섭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된데 이어 28일엔 19기 공채기수가 성명을 내걸었다.

다른 기수 사원의 성명도 다음주 초까지 속속 발표될 예정이다.

진흥회, 29일 사장공모 강행

뉴스통신진흥회가 예고한대로 29일로 사장 후보를 신문을 통해 공모할 예정이다.

사장추천위 구성을 놓고 전사원을 대표하는 사장선임 비상대책위원회와 뉴스통신진흥회가 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진흥회가 단독으로 사장공모를 강행한셈이다.

사장추천위 구성과 사장 후보 공모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나 비대위가 사장추천위에 대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며 공모 연기를 요청했으나 뉴스통신진흥회는 2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이를 부결했다.

이에 비대위는 27일 투쟁선언문에서 "사장 선임절차의 핵심인 사장추천위를 둘러싼 협의가 진행중인 과정에서 노조와 충분한 협의없이 이런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것은 노조를 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비대위는 이어 "뉴스통신진흥회의 이 같은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연합뉴스 사원 전체의 의사를 무시한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공모 일자를 연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뉴스통신진흥회가 29일을 사장공모일로 예정한 것은 유상증자를 통한 주금납입이 28일 완료돼 29일 비로소 최대주주에 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뉴스통신진흥회의 일방적인 사장 공모 강행은 현 경영진의 임기 마감에 임박해 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비대위의 입지를 좁혀 사장추천위 구성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겠다는 속셈이라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비대위는 사장공모 기간을 사장추천위 협상의 최대 고비로 보고 전사원의 뜻을 결집해 뉴스통신위원회와 협상, 비대위의 사장추천위 안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장추천위를 반드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